판결·처분으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

상속재산 절반이 내 공로라지만, 공로로 인정할 몫을 15%로 제한했습니다.

기여분 50% 요구에 15% 인정

일부 방어

상속 기여분 방어 · 심판

제 2 부

3.

상대방 1,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

주 문

1. 망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5%로 정한다.

2. 망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지분)을 상[illegible]
0.2948, 청구인 0.3465, 상대방 0.1598, 상대방 0.1989의 각 비율로 공유한다.

3.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의뢰인이 마주한 문제

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보다 특별히 기여했다며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.

해율 의뢰인들은 그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와 각자 나눌 몫을 다퉜습니다. 가족을 위해 했다는 일을 어떤 범위에서 재산으로 인정할지가 문제였습니다.

해결의 핵심

부모를 돌보거나 재산 형성에 관여한 사정이 있다고 요구한 몫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

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와 법원이 인정할 범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. 전체 상속 지분과 특별한 기여로 더 인정할 몫도 서로 다릅니다.

상속재산 절반이 내 공로라지만

기여분 50% 요구에 15% 인정. 해율이 함께한 사건의 결과입니다.

- 다른 상속인이 혼자 기여했다며 절반을 요구한다면
- 부모를 돌본 공로를 얼마나 인정할지 다툰다면
- 가족의 기여 주장 때문에 내 상속 몫이 줄어들까 걱정된다면

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.
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.

해율이 함께한 결과

법무법인 해율은 상대방으로 참여한 상속인들 측을 대리했습니다. 법원은 청구인이 요구한 특별한 기여50% 중15%를 인정하고, 이를 반영한 상속인별 공유비율을 정했습니다. 전체 상속 몫을15%로 정한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기여 주장의 범위를 제한한 결과입니다.

의뢰인에게 달라진 점

다른 상속인이 주장한 특별한 기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의뢰인들의 몫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은 결과입니다. 법원이 인정한 특별한 기여와 전체 상속 지분을 구분하면, 실제로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.

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.

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.

기여분 50% 요구에 15% 인정. 해율이 함께한 사건의 결과입니다.

- 다른 상속인이 재산 형성의 공로를 과도하게 주장한다면
- 특별한 기여와 원래 상속 몫을 구분해야 한다면
- 상속인들이 나눌 비율을 법원에서 정해야 한다면

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.
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.